

올해로 한국차학회(회장 신민경·원광대 교수)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차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조사로 차 문화 계승 발전과 대중화에 앞장서기 위해 결성된 한국차학회는 10월 22일 원광대학교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차학회 10년사>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차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 차문화 발전에 기여해 온 한국차학회의 발전취와 활동을 살펴본다.

고품격 차문화 보급 10년 노력 “빛나네”

한국차학회는 1994년 11월 19일 탄생했다. 70~80년대 ‘우리차 마시기 운동’의 불이 일어난 이후 다례와 다구 등 차 문화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이를 학술적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기원 교수(진주산업대), 박용구 교수(경북대)와 김명배 교수, 故 천병식 교수 등이 회장을 맡아 이끌어 온 한국차학회는 차 학술 문화에 관한 연구와 조사, 차나무 재배와 육종 및 가공에 관한 기술개발, 차 유적지의 지표 및 환경조사, 국내외 관련 학회 및 단체와의 학술정보 교류 등을 추진·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립 이듬해인 95년 6월 경희대 박물관에서 ‘제1차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고 학회에서 발표했던 논문을 모아 <한국차학회지>를 발간했다. 이후 매년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꾸준한 학술발표대회를 열어 학자들의 심도 깊은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이를 학회지로 묶어 펴냈다. 올해 5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티월드페스티벌’에서 19회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현재 2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

는 한국차학회에는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과 천태종 관문사 주지 총광 스님, 불교전통문화원 원장 선혜 스님 등 불교계 차인들의 참여도 눈에 띈다.

특히 선혜 스님은 지난해 10월 성신여대에서 열린 ‘2003 국제 심포지엄’에서 세미나 준비는 물론 ‘조선시대의 다예 그림’ ‘한국의 명장들의 다구’ ‘차꽃사진 전시회’ 등 문화행사 개최에도 발 벗고 나섰다.

또한 차학회는 최근 한동안 폐쇄됐던 홈페이지(www.teasoc.com/teasoc)를

한국차 학문적·기술적 대중화에 앞장 최근 홈페이지 개설로 재도약 계기 마련

다시 구축해 일반에 공개했다. 홈페이지에서는 차학회에 대한 소개와 학회지에 실렸던 논문, 차 관련 자료들을 볼 수 있어 차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 신민경 회장은 “차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차의 문화 및 과학의 계승 발전과 차의 대중화 운동을 확산시키고 나아가서 우리 삶의 품위를 한 차원 높이는 차 문화의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차학회는 10월 22일 오전



1994년 창립된 한국차학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10월22일 원광대에서 기념행사와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제17회 국제차학술심포지엄.



2003년 성신여대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선보인 다도구 전시회 모습.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광대학교 승산기념관에서 ‘차와 선(禪) 그리고 건강’을 주제로 ‘제20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중일 국제심포지움으로 이뤄질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중국의 학자들이 이끄러 이사장 등이 되돌아보는 학회 10주년 단상 등이 실린다. (063)850-6657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윤병성 교수 ‘다도고전’ 발간



한국차문화연구회장인 윤병성 연세대 명예교수가 초의 선사의 <다산전>과 <중다송>, 중국 당나라 유우의 <다경>을 풀이한 <茶道古典>을 펴냈다. 윤 교수는 이 책에서 “다도는 철학”이라고 강조한다. 흔히 ‘다도’라고 하면 복잡한 예법이나 차 생활만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은데, 윤 교수는 다도란 음료인 차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차를 상징적으로 삼고 그 상징이 갖는 정신을 일컫는다는 것이다. 우리말로 풀이하는데 있어 어려운 용어나 구절을 꼼꼼하게 설명해 놓아 뜻을 쉽게 새길 수 있다.

도예가 오순택 씨 첫 개인전

다도구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해 온 도예가 오순택 씨(현암요 대표)가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인사동 덕원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 ‘다호’ ‘다완’ ‘다반과 다호 세트’의 세 주제로 나뉘어 전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오 씨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과 작가 애장품이 함께 선보인다. 또한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오 씨는 다도구 작품 사진과 자신이 작품 활동을 펼치는 경북 문경의 도요사(陶窯 燒)를 담은 도록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02)723-7771



석정원차회, 중국 다예 특강

불교전통문화원 석정원차회(회장 선혜)는 10월 4일부터 26일까지 ‘중국 다예(茶藝) 단기특강’을 개최한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간씩 총 7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강좌를 수료하면 중국 노동청과 저장(浙江)에서 발급하는 중국 다예사 초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02)732-2068



유견집 교수의 연표로 보는 차 문화사

1. 연재를 시작하며

모든 역사는 인과의 법칙 속에서 시간이라는 배를 타고 흘러간다. 흔히 역사를 강에 비유하는 것은 그 시작은 보잘 것 없이 미약하지만 점점 수량이 많아지고 지류들이 합하여 대하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역사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일일이 파악하고 그 과정을 일러면 긴 호흡 하나하나를 다 공부해야 한다. 그러나 사학도는 물론 일반인들도 그 흐름을 짧은

시간 안에 요점만 간추려 한눈에 파악해야 할 때가 많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연표(年表)다.

연표란 역사적 사건들을 연대별로 배치하여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기능과, 사건과 내외적으로 관련된 사항들을 비교 대조하여 당시 문화의 참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80년대 중반 내가 다서를 공부하다가 차의 전래과정을 알아보려고 수많은 책을 뒤적였더니 일본과 중국 다서의 일부에는 연표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에 관한 것은 전혀 실리지 않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은 아예 없었다. 학문을 연구하느라 외국 서적을 참고로 하지 않는 이는 드물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 한국에 관한 것을 약간은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 내지는 누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그 정도가 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십 수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연표에 관한 우리 다학의 발전상은 그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 처음 차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차에 관

연표는 차의 역사이며 미래다

한 글을 읽다보면 당시 주변국들의 사정을 파악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때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의 정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이럴 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연표다. 차연구가 점점 많아지고 수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차를 공부

하겠다는 이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다시연표(年表) 하나 제대로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연표는 무엇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행본이나 사서의 부록으로 만드는 것이 좋고, 짧은 시간 안에 문제가 종합적인 면을 부각하고, 다음은 차문화도 여러 다른 문화와 연관 속에서 이루어 지므로 사회문화나 경제활동과 관련된 것은 참고하도록 했다. 그리고 한·중·일은 물론 혹은 다른 나라의 문제라도 관계되는 것은 연결시키고 모든 사항들은 유물과 유적 및 기록에 의해서만 제시토록 했으나, 유감스럽게도 너무 오랜 시대의 것은 기록이나 유물들도 희귀할 뿐 아니라 현존하는 것들도 기록한 시기나 제작된 시기를 확정하기 힘든 것도 있다. 그런 것들은 사실대로 밝히도록 했다. 끝으로 표에 내용을 다 적지 못하는 것은 주(註)를 달아서 간략하게라도 설명하도록 했다. 원고를 쓰면서 무엇보다 어려웠던 점은 눈높이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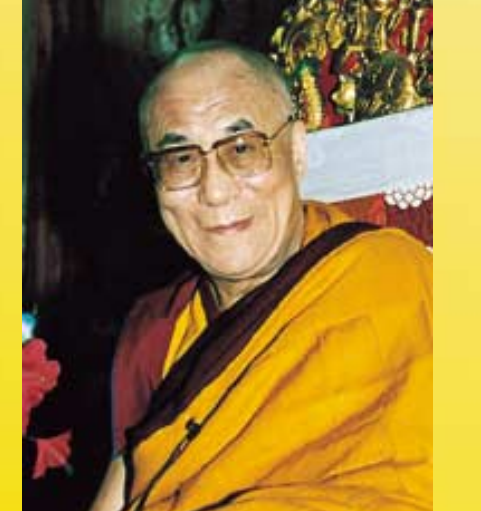
데, 대부분의 의견이 기초적인 면을 가버릴 수 없다는 쪽이어서 따르기로 했다. 참고로 이 연표는 2004학년도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강의하던 ‘차문화사’ 강좌 수강생들이 작성한 리포트를 송경섭, 김경봉 두 학생이 정리한 논고임을 밝혀 둔다. www.kj@hananet.net

유견집 교수는?
서울대 사범대학 국문과와 고려대 대학원(고전문학 석사)을 졸업했다. 1980년경부터 다학(茶學)에 몰두했고, 95년 ‘심수연학회(心水研學會)’를 만들어 본격적인 다학 연구를 시작했다. 한국차학회 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성균관대와 원광디지털대 경기도 박물관대학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한국 불자들을 위한 달라이라마의 특별법문

Dalai Lama's Dharma Teaching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한국 불자들을 위해 티벳 불교의 원전인 입보라행론(깨달음을 드는길)을 4일동안이나 설법합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4년 10월 27일 ~ 10월 30일(4일간)
- 장소 : 인도의 수도 델리
- 주관 : 여수 석천사 石泉寺 (진옥스님 061-662-1607)

달라이라마께서 <입보라행론>을 통해 인도의 위대함 불교 스승인 ‘산티데바’의 생생한 법음을 들려 줄 것이며 불교 수행의 핵심을 일깨워 줄 것 임니다. 입보라행론(入菩提行論)은 보리심을 일깨워 보살행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수행 지침서로서 우리의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비견 할 만한 경전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이 법문을 통해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아 줄 것이며 올바른 수행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임니다.

행사일정 (달라이라마 설법과 불교성지순례)
● 기간 : 10월 26일 ~ 11월 8일 14일간 (동참금 245만원)
(인천-델리(설법)-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카르-바이살리-파트나-나란다,라즈기르-보드가야-아그라-델리-인천)

참가신청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티벳 불교의 원전을 통해 달라이라마의 살아 있는 법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통역은 달라이라마의 제자이며 17년간 공부한 정전스님과 티벳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맡아 진행합니다. 입보라행론은 청전스님이 번역한 교재를 제공합니다.

※ 본 행사는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아직도 휴대용다구 치상배를 모르십니까?

스님, 불자님!!! 가벼운 산행, 성지순례, 대중공연때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언제나 O.K
싱그러운 차향(茶香)과 건강을 선물하세요.
단체 주문 일 경우 원하시는 로고를 새겨드립니다. ※ 자동차 컴퓨터에 사용가능



450ml / CS2001



360ml / CS2002



CP1001



거름망을 탈착시킬 수 있으므로 찻잎, 티백 등이 분리됩니다. 진공 이중용기라 보온, 보냉이 확실합니다.



고급포장, 미려한 제품디자인, 선물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녹차, 중국차, 티백등 입 맛따라 간편하게 사용되는 휴대용 차도구
선방스님들이 보여주신 뜨거운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株) 치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1-2 그린빌 오피스텔 511
TEL: 서울본사 02)3487-0308(대)